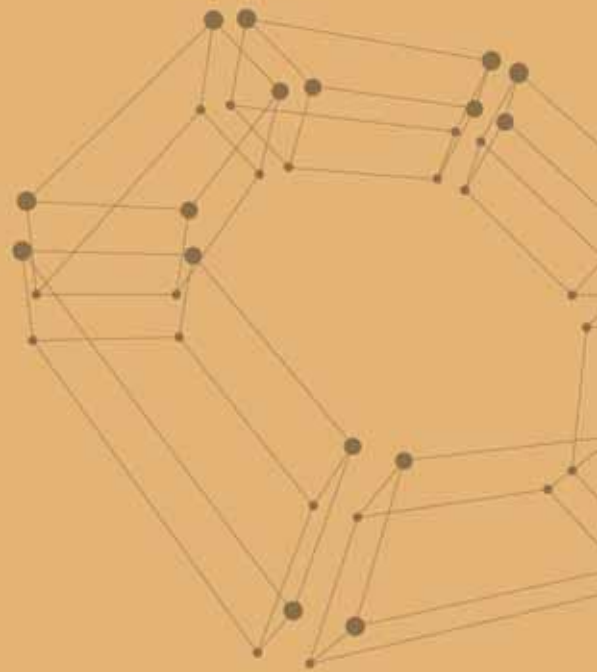


제 1 부

총 론





## 제 1 장

# 중점 추진과제 및 주요성과

위원회는 2015년 중점 추진과제로 다음 3가지를 설정, 추진하였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위원회 역할 정립> 과제를 설정하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언론조정의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조정실무에 적용할 기준을 마련하고 대량신청사건에 대한 효율적 처리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언론피해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확대> 과제를 통해, 언론피해예방을 위한 매체별 기자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지역교육 인프라 개선 및 수요 확대를 계획하였다.

3가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 ■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위원회 역할 정립

- 위원회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총 8차례의 내부토론회, 중재부장 간담회,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의 자문의견 수렴, 세미나,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상의 인격권에 기한 침해배제청구권’을 신설하고 위법한 기사댓글 및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의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가 원스톱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인격권을 충실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언론법제 전문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을 창간하여 언론법제 분야의 현안과 쟁점들에 관해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T/F팀을 운영하여 ‘뉴스미디어로서 SNS의 현황과 전망’, ‘인터넷기사 원스톱 피해구제방안’ 등 디지털 미디어 관련 이슈에 대한 법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 ■ 언론조정 전문성 및 실효성 강화

- 손해배상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손해배상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손해배상 유형별 주요 조정사례’와 함께 당사자에게 최적화된 조정안을 제공하고자 최근 3년간 합의문 1,000여 건을 분석하여 유형화한 ‘합의문 유형화 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조정 사건처리 실무에 준용할 기준을 마련하였다.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특정인이 1,000건 이상의 조정을 신청한 대량사건의 신청현황 및 처리과정을 살피고 향후 대량사건 접수 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담은 <대량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신임 중재위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화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량사건 처리 조정사례”를 비롯한 중재부별 조정사례 발표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내실 있는 중재위원 연수를 개최하여 중재위원의 조정실무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조사관 주례회의, 조사관의 조정실무 관련 발제, 언론법제 및 언론조정전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조사관의 업무역량을 제고하였다.

### ■ 언론피해예방 및 분쟁조정 교육 확대

- 2015년도 언론인 대상 언론피해예방 교육횟수는 61회로 2014년도 29회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특히 인터넷신문과 관련하여 145개 매체의 기자 598명을 대상으로 언론인 워크숍 4회, 언론피해예방 교육 27회를 실시하였다.

-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2월에는 부산사무소에, 5월에는 광주사무소에 교육 강의실을 신설하여 각각 15회, 16회 교육을 진행하였다.
- 교육콘텐츠를 명예훼손, 초상권, 범죄보도, SNS 관련 분쟁, 협상 및 조정 등 세분화된 주제로 개발하였고, 현업 기자들이 취재현장에서 자주 갖는 질문을 취합하여 교육교재에 반영하였다. 또한, 교육용 사례 발굴 및 교육교재 구성을 위한 ‘교육콘텐츠 전략회의’를 13회 가졌다.

## 제2장

## 기타 주목할 만한 성과

- 신청서 작성과 관련한 안내문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사건 접수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조정중재신청사건 처리과정의 실무를 반영해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조정절차 안내문에 제척 및 기피 신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다.
- 기사형 광고 심의를 위해 기사형 광고의 전반적인 실태를 분석하고 유관기관의 심의규정, 사례 등을 연구하여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교육실시 주기에 따라 연속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뉘어 있던 기존 교육 시스템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
-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청소년 언론중재스쿨’로 확대·개편하고,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의 진로체험분야 자원으로 등재되었다.

- 핸드북 형태의 언론인 교육 교재 「알면 유용한 언론분쟁 Q&A」를 발간하고, 교육용 PPT로 일반인 및 대학생용, 초·중·고생용, 방송기자용, 홍보담당자용 등 신규 4종을 제작하였다.
- 성과지표 지수(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자 이용만족도조사의 평균 점수)가 90.0점으로 2014년도 89.2점에 비해 0.8점 상승하였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직원의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